

KEB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섹션

2022. 10. 11

서 정훈 연구위원

seojh@hanafn.com

02.729.0195

주간 달러/원 동향(10/4-10/7)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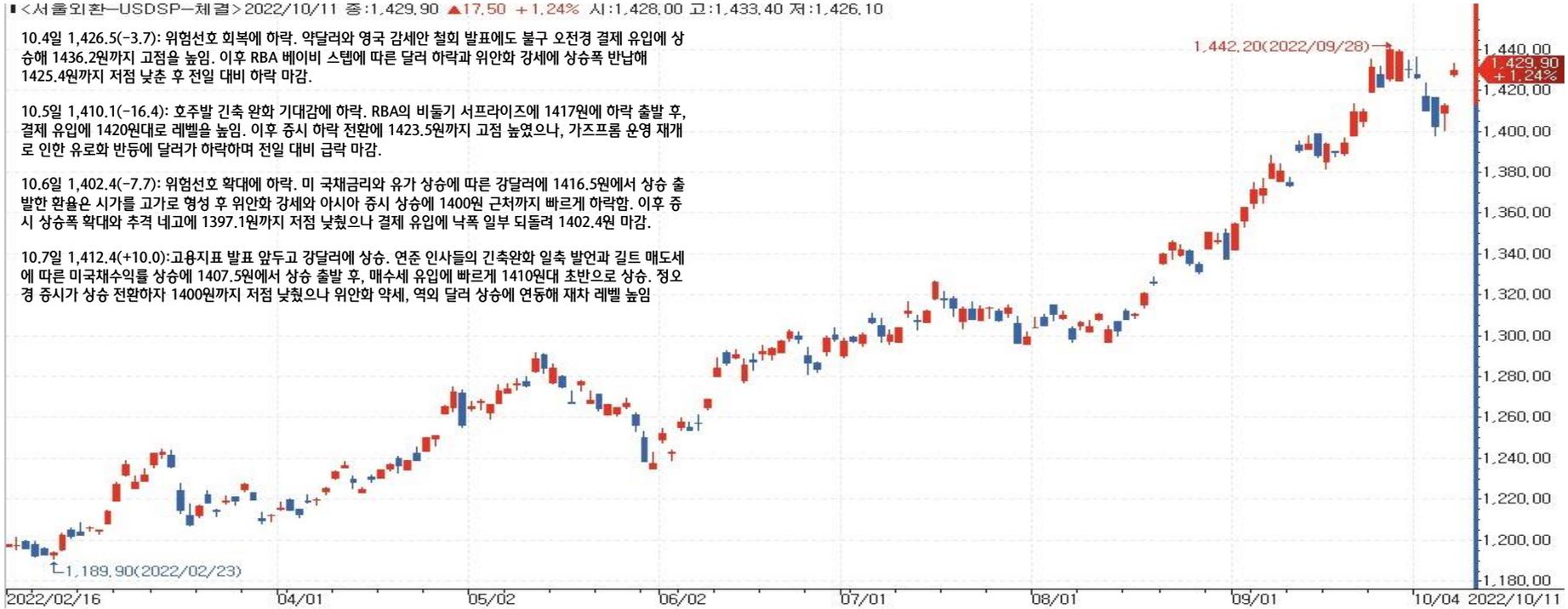
<서울외환—USDSP—체결> 2022/10/11 종:1,429.90 ▲17.50 +1.24% 시:1,428.00 고:1,433.40 저:1,426.10

10.4일 1,426.5(-3.7): 위험선호 회복에 하락. 약달러와 영국 감세안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전경 결제 유입에 상승해 1436.2원까지 고점을 높임. 이후 RBA 베이비 스텝에 따른 달러 하락과 위안화 강세에 상승폭 반납해 1425.4원까지 저점 낮춘 후 전일 대비 하락 마감.

10.5일 1,410.1(-16.4): 호주발 긴축 완화 기대감에 하락. RBA의 비둘기 서프라이즈에 1417원에 하락 출발 후, 결제 유입에 1420원대로 레벨을 높임. 이후 중시 하락 전환에 1423.5원까지 고점 높였으나, 가스프롬 운영 재개로 인한 유로화 반등에 달러가 하락하며 전일 대비 급락 마감.

10.6일 1,402.4(-7.7): 위험선호 확대에 하락. 미 국채금리와 유가 상승에 따른 강달러에 1416.5원에서 상승 출발한 환율은 시가를 고가로 형성 후 위안화 강세와 아시아 증시 상승에 1400원 근처까지 빠르게 하락함. 이후 중시 상승폭 확대와 추격 네고에 1397.1원까지 저점 낮쳤으나 결제 유입에 낙폭 일부 되돌려 1402.4원 마감.

10.7일 1,412.4(+10.0):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강달러에 상승. 연준 인사들의 긴축완화 일축 발언과 길트 매도세에 따른 미국채수익률 상승에 1407.5원에서 상승 출발 후, 매수세 유입에 빠르게 1410원대 초반으로 상승. 정오경 중시가 상승 전환하자 1400원까지 저점 낮쳤으나 위안화 약세, 역외 달러 상승에 연동해 재차 레벨 높임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호주 중앙은행(RBA)의 베이비 스텝에 따른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에 하락. RBA는 50bp가 아닌 25bp 인상 단행해 주요국 긴축 완화 기대감 확대되며 달러가 하락
- 주 중반, 가스프롬 재개에 따른 유로화 반등과 9월 급등 이후 기술적 조정에 달러-원은 1,400원 근처까지 급락함. 위안화 강세와 위험선호 일시적 회복에 따른 약달러에 추격 네고까지 더해지며 9월 급등분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
- 주 후반, 미 9월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강달러 재개에 상승. 연준 인사들이 긴축 완화 기대를 일축하는 발언 이어가고, 여전히 견조한 미 고용이 강도높은 긴축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심리 재개 속 달러-원은 상승으로 마감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미 CPI 발표에 따른 경계감, 러-우 전쟁 긴장 강화에 따른 강달러 재개에 전주 급락분 되돌리며 상승 예상됨. 13일 발표될 9월 미 CPI는 특히 핵심 물가가 상승세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연준 고강도 긴축 전망에 따른 달러 매수 심리 확대될 것으로 보임. 키이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따른 전쟁 확대 우려 또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 자극할 듯.
- 한편 12-13일 G20 회의 예정된 가운데, 강달러 완화를 위한 미국의 공조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높아진 미국 금리 전망치를 따라 12일 한은의 빅스텝 예상되나, 환시대응책 발표 결과 등이 환율 변동성을 높일 듯.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에 따른 위안화 움직임도 원화에 영향 줄 것으로 보임.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8.00	1,436.20	1,397.10	1,412.40	-17.80

예상거래범위

1,420원 ~ 1,445원

엔·유로화 동향 (10/3~10/7)



유로화 동향

- 주초, 영국 감세안 조치 전격 철회 발표 등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유로존 침체 우려 속 크레디트스위스의 재무건전성 우려 등으로 보험권 흐름 출발. 이어 호주 중앙은행의 베이비스텝 금리인상이 연준 정책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CS의 재무건전성 우려가 시스템 리스크화 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 등으로 상승
- 중반 들어, 유로존 경기지표 부진 속 OPEC+ 원유 감산 소식,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빅스텝 금리 결정 등이 달러 강세 전환에 영향을 미치며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연준의 매파 행보 지속 전망이 여전히 탄력 받는 가운데 주 후반, 미 비농업 고용지표의 시장 예상 하회에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진 3.5%를 보인 가운데, 9월 CPI에 대한 우려스러운 경계감과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하락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0.9824	0.9999	0.9725	0.9698	-0.0126

엔화 동향

- 주초, 영국 금융불안 안정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에도 엔화는 초완화기조 지속에 따른 약세 대응에 의한 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보험권 흐름 출발. 이어 호주 중앙은행의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 조치에 달러 약세 전환과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 약세 흐름을 되돌림하는 양상
- 중반 들어, 미 민간 고용 호조, OPEC+의 원유 감산 소식 속 주요 중앙은행 긴축 강도 강화 등이 달러 강세 반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차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에도 연준의 강성 매파 행보가 지속되며 9월 미 CPI에 대한 경계감 지속 전망 등이 달러 강세 견인 속에 미-일 국채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 엔화는 약세 흐름으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4.5	145.8	143.5	145.7	+1.1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4~10/7)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연휴간 하락한 미 국채금리 영향 속에 RBA가 예상을 벗어난 베이비 스텝 금리인상 결정에 하락폭을 확대하며 출발. 이어 한은이 9월 CPI 5.6% 상승 발표 이후 고물가 지속 평가를 함에 따라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연준 정책전환 기대감이 낮아진 측면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외환시장 환율이 큰 폭 하락하면서 국채 시장에 큰 폭 약세 흐름이 제한된 점이 상충하며 국고채 금리는 혼조세를 보임. 이어 주 후반, 한은 총재의 국감장에서의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시사와 미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 속에 큰 폭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10년 국채금리가 3.63%까지 하락하면서 미 증시의 강한 상승세와 국내 연휴기간 소폭 하락한 달러인덱스를 반영하면서 2200대를 회복하며 상승 출발. 이어 호주중앙은행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에 따라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영향 등으로 강보합 흐름을 나타냄
- 후반 들어, 전일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중국 위안화 가치 강세 등에 연동한 환율의 큰 폭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 개선에 2230대까지 상승. 이후 주 후반, 연준위원들의 매파 성향 기조 지속된 가운데 연준 정책전환 기대 약화, 미 고용보고서 발표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